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제시문 <가>~<마>를 읽고, 제시문에 근거를 두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의 탄생은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연의 사물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언어, 음악, 무용, 건축, 조각, 회화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고, 시민 사회의 건설자이고, 생활 기술의 발명자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여러 가지 작용의 부분적 파악, 이른바 종교를 미와 진리에 접근시키는 스승이기도 하다. 시인이 그의 상상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통적 형식을 따르는 것은 흔히 행하여진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은 선인(先人)들이 남겨 놓은 모범에 혁신적인 면을 반영하여, 각자 독자적인 작시법(作詩法)의 엄밀한 구성 속에서 창작한다.

시 작품은 삶을 그 영원한 진실 속에서 표현한 상(像) 그 자체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신의 영상과 다를 바 없는 시인의 정신 가운데 존재하는 불변의 인간성에 따라 창작한 것이다. 즉, 시는 보편적이고 온갖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성 가운데 존재하는 어떠한 동기, 혹은 작용에 대해서도 관련이 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유일한 것에 참여한다. 시는 언제나 즐거움을 수반하여, 이의 방문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모두 스스로 열리어 시의 기쁨에 섞여 있는 지혜를 받아들인다. 시인은 어둠 속에 앉아서 스스로의 고독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폐꼬리이다.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성악가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황홀해지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왜 그런 기분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듯, 시의 작용은 보다 고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친 이익과 타산주의 때문에 외적 생활의 많은 소재가 인간성의 내적 법칙에 동화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이 축적되는 시대에서야말로 시의 육성이 가장 바람직한 때이다. 일레로, 호메루스의 시를 읽은 독자들이 아킬레우스, 헥토르, 오디세우스와 같이 되려고 하는 웅지(雄志)를 품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우정, 애국심, 그리고 목적에 대한 끈기 있는 헌신이 지니는 진(眞)과 미(美)는, 호메루스가 창조한 불멸의 인물들 속에서 남김없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호메루스의 시를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하고 사랑스런 인물과의 공감에 의하여 세련되고 확대되어 마침내 찬미는 모방으로 되고, 모방은 찬미의 대상과의 동화에 이르르게 된다.

시는 정신이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사상들을 함께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정신 그 자체를 각성시키고 확대시킨다. 사람이 크게 선량하기 위해서는 시를 통해 강렬하고 광범하게 상상력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한 사람,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의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적인 선의 위대한 수단은 상상력이다. 그리고 시는 원인인 상상력에 작용을 함으로써 결과인 도덕적 선을 이끌어낸다. 시는 언제나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사상을 상상력으로 보충하여 우리의 사유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운동이 팔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는 인간의 도덕성의 중추 기관인 이 상상력을 튼튼하게 한다. 뛰어난 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시편은 지혜와 환희가 넘쳐흐르는 샘물이다.

-P. B. 셸리, 『시의 옹호』에서 발췌·요약-

<나>

목수 장석(匠石)이 제나라로 가다가 사당 앞에 서 있는 큰 도토리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하였고, 그 둘레는 백 아름이나 되었으며, 그 높이는 산을 위에서 내려다볼 만하였다. 구경꾼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이루었지만 장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버렸다. 그의 제자들은 실컷 구경을 하고 나서 장석에게 달려가 물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이래로 이처럼 훌륭한 재목(材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장석이 말했다. “그런 말 말아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관(棺)을 만들면 빨리 썩을 것이며, 그릇을 만들면 쉬이 깨져버릴 것이고, 문짝을 만들면 나무진이 흘러내릴 것이며, 기둥을 만들면 곧 썩어 먹을 것이다. 이 나무야말로 재목이 될 수 없는 나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토록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장석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 큰 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나를 어디에다 견주려 하는 것인가? 그대는 나를 좋은 재목에 견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들배, 배, 굴, 유자 등 과일나무에 견주려는 것인가? 과일나무는 과일이 열리면 따게 되고, 딸 적에는 욕(辱)을 당하게 된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어진다. 이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수(天壽)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화(禍)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세상 만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지가 오래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겨우 목적을 이루어 그 쓸모없음이 나에게 큰 쓰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커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대와 나는 다 같이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서로를 하찮은 것이라고 헐뜯을 수 있겠는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의 진가를 알 수가 있겠는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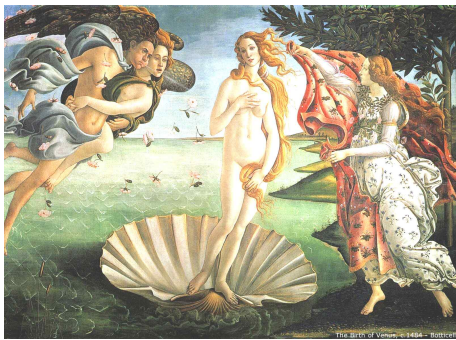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남백자기(南伯子綦)가 상구(商丘) 지방을 유람하다가 큰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보통나무와 달라서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천 대를 숨길만 했다. 그래서 남백자기는 이를 보고 말했다. “이것이 무슨 나무인가? 이것은 반드시 특이한 재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선 나무를 우러러보았다. 그러나 그 나무의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대들보로 쓸 수가 없고, 또 그 밑둥치를 보니 뒤틀리고 속이 비어 관(棺)도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잎을 따서 씹어보니 입 안이 부르트 상처가 나고, 냄새를 맡으니 지독하여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남백자기는 말했다. “이것은 과연 쓸모가 없는 나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었구나.”

- 『장자(莊子)』에서 발췌 · 수정 -

<다>



조개껍데기 위에서 막 태어난 아름다운 여인을 독창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그림 <비너스의 탄생>, 그 예술적 창의성에 탄축을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Adobe)의 제품 포장에도, 화장품 광고에도, 음료수 병에도 붙어 있는 세계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걸작이다. 그러나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거의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는 1485년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 당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보티첼리였지만, <비너스의 탄생>의 예술적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비너스의 탄생>은 그 당시 화단을 주름잡고 있던 화풍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그림들이 정물화, 그것도 수목을 재료로 사용하던 시절의 대한민국 국전에 느닷없이 피카소의 <게르니카>같은 그림이나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출품된 격이라고 할

까?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한다든가, 그림의 좌우는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명암대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 당시 미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기전형 요령을 보티첼리는 깡그리 무시했으니 입시와 국전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평론가 레비(Michael Levy)가 지구상 그 어떤 화가의 작품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만큼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이 그림은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을 먼지와 거미줄에 파묻혀 지내야 했다.

40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드디어 이 그림은 영국의 영향력 있는 문예비평가 러스킨(John Ruskin)의 눈에 운명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는 보티첼리의 작품을 발견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작품이 왜 지금까지 버려져 있었던가’ 라는 회화와 찬사가 가득 찬 평론을 썼다. 그 글이 출판된 후, 이 그림을 보기 위한 행렬은 끝 모르고 이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르네상스의 근원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전 세계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최인수, 『창의성의 발견』에서 발췌 · 수정 -

<라>

I

너 더럽혀지지 않는 정숙의 신부여,
 너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우리들의 시보다 더 감미로이 꽃다운 이야기를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 삼림의 역사가여:
 무슨 가장자리 앞으로 꾸며진, 신들 혹은 인간들 혹은 둘 다의
 전설이 네 모습 주변을 떠도는가,
 템페인가 혹은 알카디아의 골짜기인가?
 이들은 무슨 사람들 혹은 신들인가? 무슨 처녀들이 수줍어하는가?
 얼마나 미친 듯한 추적인가? 도망치려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무슨 피리며 북들인가? 얼마나 미칠 듯한 황홀인가?

Thou still unravished bride of quietness,
 Thou foster-child of silence and slow time,
 Sylvan historian, who canst thus express
 A flowery tale more sweetly than our rhyme:
 What leaf-fringed legend haunt about thy shape
 Of deities or mortals, or of both,
 In Tempe or the dales of Arcady?
 What men or gods are these? What maidens loath?
 What mad pursuit? What struggle to escape?
 What pipes and timbrels? What wild ecst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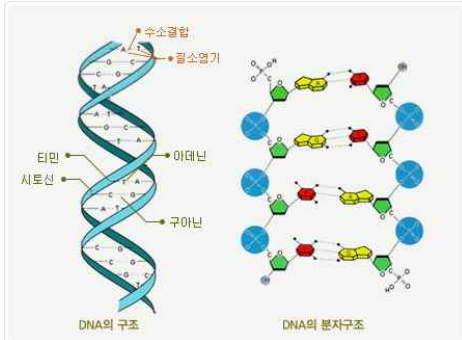
(중략)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p>III</p> <p>아, 행복한, 행복한 가지들이여! 너희들은 잎을 지게 할 수도 없고, 봄에 작별을 고할 수도 없으리;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영원히 피리 부는 피로할 줄 모르는 연주자여; 보다 행복한 사랑! 보다 행복하고 행복한 사랑이여! 영원히 따뜻하고, 언제나 즐길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젊은; 슬픔에 찬 가슴, 쾌락으로 싫증난 가슴, 불타는 이마, 타오르는 혀를 남기는 모든 숨쉬는 인간의 정열을 초월한 사랑이여.</p> <p>(중략)</p> <p>V</p> <p>오 아티카의 형상이여! 아름다운 자태여! — 대리석 남자와 처녀들의 그림과 숲의 나뭇가지와 짓밟힌 잡초로 온 표면이 수놓인 —; 말없는 형상이여, 너는 영원처럼 우리를 생각이 미칠 수 없게 괴롭히는구나: 차가운 목가여! 늙음이 이 세대를 황폐케 할 때 너는 우리의 고통과는 다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인간에게 친구로 남으리, 그리고 인간에게 말하리, <미는 진리고, 진리는 미>라고. —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는 전부고, 알 필요가 있는 전부다.</p> <p style="text-align: right;">-존 키츠, 「그리스 향아리에 부치는 송시」에서 발췌-</p> <p>*주(註): 낭만주의 시인 키츠는 상상력의 힘을 빌려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그의 시 속에 재현한다.</p> <p><마></p> <p>20세기 생물학의 혁명은 세포 속에 있는 DNA라는 물질이 유전을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낸 일이다. DNA 구조의 발견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944년 록펠러 의학연구소의 오스왈드 에이버리가 DNA가 유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DNA의 구조를 발견할 준비를 끝냈다.</p> <p>크릭은 원래 양자역학을 공부한 물리학자였다. 그런데 그는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읽은 후 전공을 생물학으로 바꾸며, 막스 페루츠가 X선 회절법을 이용해 고분자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결정을 연구하는 팀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슈뢰딩거의 같은 저서를 읽은 후 유전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왓슨을 만나게 된다. 더욱이 유전자가 DNA 안에 있을 것이라는 크릭의 생각에 왓슨도 크게 공감하였다.</p> <p>DNA의 구조에 대하여 고민하던 두 사람은 2개의 연구 결과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DNA 속 염기들의 결합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염기동량설을 밝혀낸 오스트리아 생화학자인 에르빈 샤가프의 연구 결과였고, 또 다른 하나는 DNA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는 상세한 윌킨스와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들이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DNA의 구조가 삼중나선구조일 것이라는 이전의 생각을 바꾸고 DNA가 이중나선구조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DNA의 이중나선구조 모형은 윌킨스와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샤가프의 염기동량설 등 기존의 알려진 사실들과 이론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p>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 DNA 구조 및 분자구조 >

1953년 4월 25일, 폴링이 DNA가 삼중나선구조라는 잘못된 논문을 발표한지 두 달 후, 왓슨과 크릭은 128줄로 이루어진 짧지만 강력한 DNA 이중나선구조에 관한 논문을 완성해 『네이처』 지(誌)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DNA 이중나선구조 모형은 오늘날에도 별로 고칠 것이 없는 이상적인 모형이다. 이것은 왓슨과 크릭이 무엇에 기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완벽한 최종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논문에서 왓슨과 크릭은 “특이적인 염기쌍의 구조를 바탕으로 DNA의 복제 메커니즘 예측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어떻게 유전물질인 DNA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DNA 이중나선구조는 멘델 이후 1백여 년 동안 풀려고 노력했던 생명복제의 신비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왓슨과 크릭이 DNA의 상세한 구조를 밝힘으로써 인류는 마침내 신비 속에 가려 있던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인 분자생물학의 지평을 열어준 것이다. DNA 이중나선구조의 발견은 이후 수많은 생명과학 연구의 출발점이 됐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생명 현상의 비밀들이 풀려가기 시작했다. DNA 이중나선구조를 밝힘으로써 생명과학의 새로운 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크릭과 왓슨은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을 제시하는 이론인 센트럴 도그마, 돌연변이설 등 현대생물학의 중요한 개념과 사건이 모두 DNA 구조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DNA가 이중나선구조를 하고 있다는 발견은 20세기 과학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세계 최초 DNA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 & 제임스 왓슨」, 『VitaminMD』에서 발췌·수정-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라>에서 ‘가치(價値)’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끼리 분류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 ㉓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신기술을 적용한 ‘배터리’
- ㉔ 떡볶이의 매운 맛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주방장이 새로 만든 ‘비밀 원료’

위 두 제품이 전국 발명대회에 출품되었다. 심사위원회는 하나 혹은 두 제품 모두에게 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마>의 왓슨과 크릭의 예가 보여주는 창의성이다. 이 창의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두 측면을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다>와 <라>를 각각 이용해서 정당화한 다음, 대상 수상작을 결정하시오. (1000자 내외)

인문계(1교시) 논술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의도

이번 인문계(1교시) 수시 논술고사는 문학·철학·미술·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이를 제시하고, 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발췌된 제시문은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동양고전과 신문기사,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과 독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서로부터 뽑은 것으로서, 이들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시문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구성·배치하였다. 그러나 사전지식이나 혹은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였다.

다섯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논제는 ‘가치(價値)’이다. ‘가치’는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지는 화두이기도 하며, 문학·철학·미술·자연과학 등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시문학에 있어서 가치의 영원성과 항구성, 그리고 그 가치의 효능적 측면을 탐색해볼 수 있다면, 이와 반면에 사물이나 예술품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대에 따라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치의 가변성과 효용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술고사의 첫 번째 평가 지표는 이들 ‘가치’에 관한 양면성을 구분·분석하여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데에 있다.

한편, 마지막 제시문을 통하여 ‘창의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결부되어 정의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를 응용하여 ‘창의적 산물’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에 두 번째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산문 『시의 옹호』(*A Defense of Poetry*)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낭만주의는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신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초자연적인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독창성이 존중되는 작품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문예사조이다. 셸리는 이 글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의 의미와 역할을 논하고 있다. 이 글은 지식인이 시를 창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과학이나 의학, 경제학, 정치학 등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 전념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한 피코크(Thomas Love Peacock)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의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 셸리는 19세기 영국사회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추악하고 모순적이어서 오직 ‘시’만이 이를 치유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시인은 상상력을 통해 불멸의 질서를 그려내고 표현하므로, 시란 일그러진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인간 안에 내재하는 영성을 부패로부터 구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것을 불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시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을 공감하도록 장려해주며, 결국 시는 도덕적 선의 원천이 되어 인간의 지각을 깨우치고, 이를 통해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갖춘 사회로 발전해나간다는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효용임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동양고전 가운데 하나인 『장자』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같은 사물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가치와 효능이 달리 정의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더욱이 가치의 효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

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우화(寓話)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일례로 도토리나무는 그 크기 면에서 엄청난 재목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무게나 재질에 따라 소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에게도 쓰임을 받지 못한 덕분에 자신의 수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세속의 사물에 대하여 쓸모 있는 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는 사실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세속의 무용(無用)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용(有用)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가 1485년에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비너스의 탄생’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라파엘 양식과는 다른 화풍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까닭에 그 시대에 활동하는 모든 평론가들은 ‘비너스의 탄생’이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반하여, 라파엘 양식과는 다른 화풍에 익숙한 후대의 평론가들은 ‘비너스의 탄생’의 창의적 예술성을 극찬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예술 작품을 비롯한 창작물들의 평가에는 당시의 시대사조가 반영되며, 또한 시공에 따라 그 가치가 가변적으로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낭만주의 시인 키츠(John Keats)의 시로, 시인은 변화·파괴·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세계와 대비되는 영원하고 불후한 예술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I·Ⅲ에서 향아리에 새겨진 그림에 주목한다. 향아리를 조각한 예술가는 인간사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순간들을 포착하여 이것들을 향아리에 장식하였다. 세월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향아리에 새겨진 인물들은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불변함으로 고대문명의 정신을 계속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었음을 시인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키츠가 향아리에 새겨진 인물들을 장식으로 보는 동시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실존했던 사람들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 모를 조각가는 이들의 살아있는 열정과 역동성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정지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이들은 움직일 수도 변할 수도 없다. 결국 향아리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순간에 고정되었지만 예술을 통해서 영원해지는 영상들이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향아리는 ‘말없는 형상’으로 초역사성을 간직한 채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남아 말없는 ‘아름다움’이나 ‘진리’로 존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영원한 계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술적 가치로 승화된 향아리는 영원불변의 속성을 모두 담아낸 것으로 칭송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하는 과정과 이로 인하여 파생된 다양한 과학적 발견들에 관하여 기술해 놓은 신문기사이다. 제시문 <마>를 통하여 첫째, 과학에서의 창의적 산물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비하여 반드시 새로워야 하며, 둘째,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까지도 가치가 있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제시문 <마>의 전반부에서는 DNA 이중나선구조의 발견이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기존 발견되었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시문 <마>의 후반부에서는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들이 증명해낸 창의적 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NA 이중나선구조의 발견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서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물의 기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설

【문제1】은 학생들의 지문 독해와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가>와 <나>의 논지를 이해하여 요약하는 것이다. 둘째, '가치'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끼리 분류한 후, 셋째, 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의 핵심논지는 다음과 같다:

①시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관여해야 한다. (즉, 시인은 언어, 음악, 무용, 건축, 조각, 회화의 창조자이자, 법의 제정자이고, 시민 사회의 건설자이고, 생활 기술의 발명자이고, 종교를 미와 진리에 접근시키는 스승이다.)

②시인의 정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수렴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무한하고, 유일한 것에 참여한다. (시의 가치는 불변하다.)

③시의 실질적 효용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크게 선량하게 하고, 타인의 괴로움과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게 하여, 그의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한편, <나>에서는 쓸모없다고 홀대받은 나무가 그 쓸모없음으로 인해 꺾이지 않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반면 특이한 재목이 되겠다고 높이 평가받은 나무는 쓸모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이 제시문의 핵심은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더욱이 가치의 효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대적/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라>를 분류하는데 있어, 가치의 절대성·불변성을 주제로 한 <가>와 <라>, 가치의 상대성·가변성을 주제로 한 <나>와 <다>로 분류하여야 한다.

【문제2】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능력, 유추능력, 그리고 응용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마>에서 제시한 사례를 근거로 핵심논지를 파악하여 창의성의 두 가지 측면(즉, 새로움과 효용적 가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산물(혹은 행동)”을 정의한다. 둘째, <다>와 <라>에서 제시된 가치에 대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배터리와 비밀원료의 창의성을 두 가지의 관점에 의하여 평가한다.

첫째, <마>의 핵심논지는 다음과 같다.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 이중나선구조는 이전의 DNA 구조 이론들과는 달리 새로우며 이전에 발표된 다른 DNA 관련 이론들(예: 염기동량설)에서 예측되는 결과들을 잘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DNA 이중나선구조의 발견은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연구 분야들에서 진일보를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의 효용적 가치는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으로서 보다 극명하게 증명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발견은 20세기 과학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산물이 산출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효용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혹은 발명)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둘째, <다>와 <라>에 의하면 창의성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인 효용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국 발명대회 심사위원회의 배터리와 비밀원료에 대한 수상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다>는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치의 가변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라>는 가치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다는 가치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다.

<다>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가치는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배터리와 비밀원료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서 효용적 가치는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에서 제시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의 예를 살펴보면 보다 극명해진다. 현재 위대한 창의적 예술품으로 극찬 받고 있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발표될 당시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창의적인 예술품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비너스의



탄생>의 예는 창의성을 평가할 때, 가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배터리와 비밀원료가 지니는 효용적 가치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창의적인 산물의 평가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두 제품이 이전의 것들과 달리 모두 새롭기 때문에, 두 제품의 창의성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발명대회에서 배터리와 비밀원료는 공동수상이 될 수 있다.

<라>에서는 ‘예술적 가치로 승화된 향아리가 영원불변의 속성을 모두 담아냈다’는 것을 칭송함으로써 가치의 영원불변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가치는 불변하는 것이므로, 배터리와 비밀원료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서 효용적 가치는 필요불가결한 평가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배터리와 비밀원료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창의성의 한 차원인 새로움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만, 창의성의 다른 차원인 효용적 가치에서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배터리와 비밀원료 중 보다 높은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독수상작이 된다.